

자발적 복종

어쩌면 산다는 자체가 고달프다. 특히나 이민의 삶은 굴러온 돌이니 박힌 돌들의 기득권과 짜여진 틀 속에서 별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하니 더욱 고달플지 모른다. 나도 이민 초기에 한국의 지인들이 미국 생활이 어떻냐고 물어오면 “그냥 생각없이 하루하루 산다.”고 답한 적이 있다. 신분문제며, 구멍가게를 꾸려나가는 것도 나의 의지나 이민오기 전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기존의 이민자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답습하는게 고작이었다. 아니 한정된 재원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민의 삶이라는 굴레에 자발적으로 구속되고 굴복하며 사는지도 모른다.

<자발적 복종>은 16세기 프랑스 에티엔 드 라 보티에가 쓴 책 이름인데, 이런 말이 있다. “노예인 자는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는 실은 노예이면서도 노예인지조차 모른다.” 핵심은 <자유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며, 꿈꾼다. 푸른 창공을 더높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날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나는 자유인인가, 자발적 복종자인가. 자신의 <몸 자리>의 궤적이 각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 몸자리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이 선택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몸을 놓는 <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내몸이 놓이는 <처지>이다. 물론 물질적 관계, 물질적 토대가 사람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삶의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소중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칼린 지브란의 말대로, 현대사회는 애석하게도 물신(物神)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이다. 물신은 인간의 가치와 선택을 수치로 치환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최종 학력이 무엇인지, 직책이 무엇인지, 년봉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사는 집이 얼마인지, 심지어 가족과 자식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지 등등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비교평가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상대적 평가해서 자신이 가치없다고 결론짓으면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이자 진보신당의 대표였던 홍세화씨는 “유보는 하더라도 포기는 하지말라”라고 말한다. 즉 생존때문에 자아실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생존을 위한 삶은 준엄하면서도 냉정하므로 게을리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산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바위를 굴러 올리는 것처럼 포기하지말고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끝없는 패배>라고 말한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두번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긴장은 긴축할 때의 긴(緊)과 베풀 장(張)이 합쳐진 말이다. 즉 긴장은 조화와 균형이다. 보수와 진보, 주체와 상황, 인격과 물질, 이성과 감정, 이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는 그의 삶에서 몸자리를 선택해야 할 때의 기준을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 허용된 삶의 소중함에 대해 인식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결국 자유인으로서의 지향, 자아실현, 삶의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 그리고 그걸 위한 긴장, 그 과정 자체가 설령 한두번이 아닌 <끝없는 패배>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삶을 누구도 평가할수 없다. 각자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자신이어야 한다. 이것이 자존감의 핵심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없는 고통이다.”이라고 말한다.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고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푸시킨의 시처럼, 아무리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할 필요가 없다. 슬픔과 고통의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홍세화씨는 말하기를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관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소유의 시대는 끊임없는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관계의 시대는 성숙이 목표다.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 (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 (同而不和)한다”라는 말이 있다. 즉 군자는 같지 않으면서 화목할 수 있는데, 소인은 같으면서 불화한다는 뜻이다. 이는 프랑스의 톨레랑스 개념 (영어의 Tolerance : 관용, 아량, 포용력)과 유사하다. 이 개념은 서로 다른 사상과 생각이 서로 존중되고 이해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본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씨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자유인>이 되고픈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나의 의지로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 선조들 중에 멋쟁이 자유인들이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다. 조선의 선비를 말할 때, 자신만의 <文史哲>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자신만의 문학과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능으로는 <詩書畫>가 일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선비는 마땅히 <身言書判>이 좋아야 한다고 한다. 몸, 말, 글씨, 그리고 판단력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몸이란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품기는 인격이다. 깊어가는 겨울밤 창문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시조나 한번 목청껏 불러봄은 어떨지.. “청~산리 벽~계수야, 쉬이 감을 자랑마라~~”